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5 pp. 492-501,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5.492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간호대학생과 산과 및 아동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

조명주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Perception and Sexual Attitude Unwed Mother in Nursing Students and Obstetrics and Pediatric Nurses

Myoung-Ju Jo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산과 및 아동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는 B광역시와 U광역시에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3·4학년 학생 94명과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8개 병원 간호사 101명이다. 자료수집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간호대학생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정도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학년, 나이, 형제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간호사는 나이, 직급, 총 근무기간, 현부서 근무기간, 결혼 여부, 자녀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자신의 주변에서 미혼모 접촉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간호사는 주변에서 미혼모 접촉 경험, 병원 규모, 결혼 여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를 규명하고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여, 향후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the perception and sexual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and obstetrics and pediatric nurses towards unwed mothers, and to identify differences i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Data were collected a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survey from September, 2018 to January, 2019. Subjects included 94 nursing students enrolled at 2 nursing colleges, and 101 nurses of 8 hospitals located in the B & C Metropolitan. The data collected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independent t-test, and one-way ANOVA. Comparing results obtained from nursing students and nurses reveal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overall perception of an unwed mother and sexual attitude. The perception of an unwed mothe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considering the grade, age and sibling status of nursing students, whereas nurses revealed significantly different perceptions according to their age, occupational position, clinical career, career of current work department, marital status, and children status. Sexual attitud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or nursing students according to their experience contact with unwed mother, whereas perception of nurses differed significantly for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experience contact with unwed mother, types of hospital, and marital status. We propose that data obtained from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and education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unwed mothers and sexual attitude of nursing students and nurses.

Keywords : Student, Nurses, Illegitimacy, Sex, Perception, Attitude

이 성과는 2017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NRF-2017R1C1B5017460).
*Corresponding Author : Myoung-Ju Jo(Catholic Univ. of Pusan)
email: nicupicur@cup.ac.kr
Received February 1, 2021 Revised March 17, 2021
Accepted May 7, 2021 Published May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으로 미래 세대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 출산의 합법성을 결혼제도의 틀 안에서만 승인하는 부계혈통에 기초한 가족주의와 폐쇄적인 성의식으로 미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가족과 성규범에 대한 도전이자 일탈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2]. 이에 우리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았으나 임신을 하고 출산한 여성들, 즉 '미혼모'들은 동일한 출산 과정을 거쳤지만, '어머니'의 정체성보다 부도덕하고 불우한 여성으로 머물게 하는 사회적 기제 안에 놓임에 따라[3] 미혼모와 그 자녀로 구성된 미혼모 가족은 여전히 정당한 가족 형태의 사회적 승인에서 배제되어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고 있다[1,2]. 미혼모에 대한 낙인은 우울, 위축, 소외감과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 고통, 자존감 저하, 자기의심, 지위 상실과 사회 및 경제적 참여 기회의 감소와 같은 심각한 영향을 준다[4].

한국 사회의 미혼모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낙인화된 이미지는 의료전문가들에게도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의학적 관점에서 미혼모들을 차별 없이 진료한다고 하지만 이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미혼모에 대한 일반적인 편견이 반영되어 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 또한, 일부 의료진들은 혼외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과 이중적인 성태도에 근거하여 모성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거나 혼외 출산에 대한 비난과 낙인감을 부여하기도 한다[6]. 이는 미혼모들의 자녀 출산 및 양육 결정에도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산전·산후 관리를 회피하게 하여 자신과 자녀의 건강에도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6].

또한 우리사회는 성적 활동과 혼전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짐에 따라 성병과 10대의 임신이 증가하고 있다[7]. 간호사는 대상자의 성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특히 산과 및 아동 간호사는 이들의 가장 적절한 성 관련 상담자가 될 수 있다[7,8]. 그러나 우리나라 임상간호사의 성태도와 신념은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른 차이로 인해 외국간호사들보다 보수적인 편이어서 대상자의 성 건강을 다루는데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9]. 개인의 성태도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에 대해 갖고 있는 체계화되고 일관성 있는 사고, 감정 및 행동의 양식이어서[10] 간호사 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태도와 신념은 환자의 성 건강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11]. 즉, 부정적인 성태도는 대상자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흥미를 저하시켜 대상자에 대한 간호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은 성 건강 간호 담담자로서 현대사회의 성과 관련한 다양한 변화와 이슈에 노출되어 있고 대상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의 관심과 토대는 미흡한 실정이다[12].

환자와 대면하는 기회가 가장 높은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산과 및 아동 간호사들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도 임상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 여부를 확인하여 준비된 간호사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까지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미혼모들의 경험을 통해 본 의료진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5,6,13]에 대한 연구가 있으나 이는 미혼모의 일방적인 경험이나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는 한 편[14] 뿐이며, 동일한 도구로 조사한 연구가 없어 인식 정도를 파악하는 데 제약이 있다. 또한, 간호사를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전혀 없다. 성태도 또한 간호대학생의 성태도를 조사한 연구[14,15]는 있으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태도를 조사한 연구는 없어 간호사의 성태도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 간호제공자인 간호대학생과 간호사가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에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만약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9].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제공자인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를 파악하고 대상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여 향후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과 산과 및 아동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과 산과 및 아동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3) 산과 및 아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산과 및 아동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정도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과 2개의 종합병원 및 6개의 여성병원에 소속된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환자를 대면하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간호사는 미혼모 대면 접점 부서인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 병동 및 외래, 분만실, 신생아실 및 신생아중환자실로 근무지를 제한하였다. 대상자의 표본크기 산정 기준은 G Power 3.1.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분석을 기준으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크기 .5, 검정력 .90을 적용한 결과 최소 표본 크기가 각 군당 86명이었다.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08부를 배부하였여 간호대학생 98부, 간호사 106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자료가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간호대학생 94부(87.0%), 간호사 101부(93.5%)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미혼모에 대한 인식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임애덕과 최승희[16]가 개발한 미혼모에 대한 인식 도구를 황인명[9]이 수정·보완한 13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였다. 전체 13문항 중 미혼모 발생에 대한 인식 3문항, 정서적 인식 3문항, 보호와 처벌에 대한 인식 4문항, 개인적 삶에서의 수용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황인명[17]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82였고,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2.3.2 성태도

성태도는 호선민[18]이 개발한 성태도 측정도구를 우근희[10]가 수정한 3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으로 쾌락·유희적 성 11문항, 혼전순결 허용성 7문항, 성 허용성 6문항, 동성애 허용성 5문항, 낙태 허용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부정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였으며, 성태도의 점수는 낮을수록 보수적이고, 높을수록 개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우근희[10]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73~.94였고,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2.4 자료수집

연구대상자는 B광역시에 소재한 2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과 2개의 종합병원 및 6개의 여성병원에 소속된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편의추출하여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자료수집하였다. 간호대학생은 해당 학교의 학과장에게 승인을 받고 대상 학교에 대상자 모집 공고를 하였다.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와 연구보조자로 선정된 학생이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 내용 등을 설명한 후 배부 및 회수하도록 하였다. 간호사의 경우 간호부서의 최고관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간호부를 통해 해당 병동의 간호사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 정도와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및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 정도 차이는 independent t-test 및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해 B광역시 C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No.CUPIRB-2018-045)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시 대상자에

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자발적인 연구 참여와 철회 가능성 및 작성된 설문지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개별화된 ID로 코드화하여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였다. 연구 참여시 소정의 선물로 감사 표시를 하였다.

5. 연구결과

5.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1.1 간호대학생

간호대학생 94명 중 여학생이 82명(87.2%)이었으며, 학년은 4학년 48명(51.1%), 3학년 46명(48.9%)이었다. 나이는 평균 22.78세였다. 형제관계는 여자형제가 37명(39.4%), 남자형제가 41명(43.6%), 모두 있는 경우가 14명(14.9%), 없는 경우가 2명(2.1%)이었다. 주변에서 미혼모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가 22명(23.4%)이었다 (Table 1).

5.1.2 간호사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간호사 101명 중 나이는 평균 37.29세였고, 주변에서 미혼모 접촉 경험이 있는 경우 33명(32.7%)이었다. 근무 병원 규모는 종합병원 이상이 45명(45.0%)이었고, 직급은 일반간호사가 66명(66.0%)이었다. 총 근무기간은 평균 13.09년, 현부서 근무기간은 4.37년이었으며, 근무부서는 산과 파트가 55명(57.3%), 아동 파트 41명(42.7%)이었다. 미혼모 또는 그 자녀를 간호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85명(84.2%)이었으며, 결혼 여부는 기혼이 55명(54.5%)이었고, 이 중 자녀가 있는 경우가 49명(49.0%)이었다 (Table 2).

5.2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

간호대학생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전체 평균 2.13점이었다. 하위영역 별로는 미혼모 발생에 대한 인식 1.71, 정서적 인식 3.03점, 보호와처벌 1.63점, 개인의 삶에서의 수용 2.33점이었다. 산과 및 아동 간호사는 전체 평균 2.53점이었으며, 하위영역에서는 미혼모 발생에 대한 인식 2.76점, 정서적 인식 3.32점, 보호와 처벌 1.74점, 개인의 삶에서의 수용 2.61점이었다.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에 비해 전체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t=-6.54, p<.001). 하위영역별로는 미혼모 발생에 대한 인식(t=-9.63, p<.001), 정서적 인식(t=-2.68, p=.008), 개인의 삶에서의 수용(t=-3.15, p=.002)에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나, 보호와 처벌(t=-1.36, p=.176)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성태도는 전체 평균 3.12점이었고, 하위영역에서는 쾌락·유희적 성 2.93점, 혼전순결 허용성 3.21점, 성 허용성 2.72점, 동성애 허용성 3.42점, 낙태 허용성 3.54점이었다. 간호사의 성태도는 전체 평균 2.88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쾌락·유희적 성 2.82

Table 1. Perception of unwed mother and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ursing students

(N=94)

Variables		n (%)	Perception of unwed mother		Sexual attitude	
			M±SD	t / F (p)	M±SD	t / F (p)
Gender	Male	12 (12.8)	1.96±0.58	-1.39	3.04±0.40	-0.63
	Female	82 (87.2)	2.16±0.46	(.168)	3.13±0.46	(.531)
Grade	3	46 (48.9)	1.99±0.43	-2.93	3.11±0.46	-0.01
	4	48 (51.1)	2.27±0.48	(.004)	3.11±0.45	(.992)
Age (yr)		22.78±3.50				
	≤ 20	21 (22.3)	1.93±0.46	3.81	3.18±0.44	1.16
	21-30	69 (73.4)	2.17±0.46	(.026)	3.08±0.46	(.319)
	31-40	4 (4.3)	2.54±0.42		3.39±0.23	
Sibling status	Sister	37 (39.4)	2.02±0.41	3.09	3.21±0.45	1.44
	Brother	41 (43.6)	2.29±0.48	(.031)	3.04±0.49	(.238)
	Both	14 (14.9)	1.96±0.46		3.03±0.32	
	None	2 (2.1)	2.23±0.87		3.49±0.36	
Experience contact with unwed mother (except for nursing)	Yes	22 (23.4)	2.10±0.39	-0.40	3.29±0.44	2.14
	No	72 (76.6)	2.14±0.50	(.693)	3.06±0.45	(.035)

점, 혼전순결 허용성 2.85점, 성 허용성 2.58점, 동성애 허용성 2.85점, 낙태 허용성 3.37점이었다.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성태도의 차이는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에 비해 전체 점수에서 유의하게 높았다(t=4.08, p<.001). 하위영역에서는 혼전순결 허용성(t=2.72, p=.007)과 동성애 허용성(t=3.74, p<.001)에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나, 쾌락·유희적 성(t=1.70, p=.091), 성 허용성(t=1.90, p=.059), 낙태 허용성(t=1.74, p=.083)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3).

5.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 비교

5.3.1 간호대학생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성별, 학년, 나이, 형제관계, 주변에서 미혼모 접촉 경험 항목 중에서 학년(t=-2.93, p=.004), 나이(F=3.81, p=.026), 형제관계(F=3.09, p=.03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의 경우 4학년이 평균 2.27점으로 3학년의 1.99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나이에서는 31-40세가 2.54점, 21-30세가 2.17점, 20세 이하가 1.93점으로 나이가 높을수록 평균이 높았으나,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형제자매의 경우 남자형제가 있는 경우 2.29점,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2.23점, 여자형제가 있는 경우 2.02점, 모두 있는 경우 1.96점 순이었으나 사후검정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주변에서 미혼모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성태도가 평균 3.29점으로 없는 경우의 3.06점에 비해 유의한 높았다(t=2.14, p=.035) (Table 1).

Table 2. Perception of unwed mother and sexual attitud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nurses (N=101)

Variables		n (%)	Perception of unwed mother		Sexual attitude	
			M±SD	t / F (p)	M±SD	t / F (p)
Gender	Male	0 (0.0)	-		-	
	Female	101 (100.0)	2.53±0.39		2.88±0.32	
Age (yr)	≤ 20	37.29±10.33	-		-	
	21-30	38 (37.6)	2.39±0.33	3.27 (.024)	2.96±0.31	1.90 (.135)
	31-40	23 (22.8)	2.66±0.44		2.89±0.33	
	41-50	26 (25.7)	2.61±0.38		2.77±0.30	
	≥51	14 (13.9)	2.62±0.40		2.88±0.32	
Experience contact with unwed mother (except for nursing)	Yes	33 (32.7)	2.49±0.35	-1.93 (.061)	2.76±0.38	-2.75 (.007)
	No	68 (67.3)	2.71±0.38		2.94±0.27	
Type of hospital	≥ General hospital	45 (45.0)	2.51±0.42	-.838 (.404)	2.80±0.35	-2.36 (.020)
	Women's hospital	55 (55.0)	2.57±0.36		2.95±0.27	
Occupational position	Staff nurse	66 (66.0)	2.44±0.39	-3.58 (.001)	2.93±0.30	1.95 (.055)
	≥ Head nurse	34 (34.0)	2.72±0.32		2.80±0.33	
Clinical career (Yr)		13.09±9.64				
	< 10 [a]	45 (44.6)	2.41±0.39	4.80 (.010) a<b	2.95±0.31	2.22 (.114)
	10-19 [b]	24 (23.8)	2.68±0.31		2.86±0.33	
	≥ 20 [c]	32 (31.7)	2.54±0.39		2.80±0.31	
Career of current work department (Yr)		4.37±5.17				
	< 5	70 (69.3)	2.47±0.40	-2.63 (.010)	2.88±0.34	-0.41 (.684)
	≥ 5	31 (30.7)	2.69±0.39		2.90±0.26	
Working field*	Obstetrics	55 (57.3)	2.59±0.35	2.17 (.032)	2.90±0.31	-0.26 (.798)
	Pediatrics	41 (42.7)	2.42±0.42		2.91±0.29	
Experience in nursing unwed mother or children	Yes	85 (84.2)	2.52±0.38	-0.88 (.380)	2.88±0.33	-0.04 .970
	No	16 (15.8)	2.62±0.46		2.89±0.25	
Marital status	Unmarried	46 (45.5)	2.38±0.38	-4.11 (<.001)	2.96±0.30	2.09 (.039)
	Married	55 (54.5)	2.67±0.35		2.83±0.32	
Children status	Yes	49 (49.0)	2.70±0.33	4.65 (<.001)	2.82±0.31	-1.91 (.059)
	No	51 (51.0)	2.38±0.38		2.94±0.31	

* Obstetrics(Delivery room, Obstetrics ward and outpatient), Pediatrics(Neonatal unit,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Pediatrics ward and outpatient)

Table 3. Comparison of perception of unwed mother by nursing students and nurses

(N=195)

Variable	Categories	Nursing Students (n=94)	Nurses (n=101)	t	p
Perception unwed mother	Perception of the occurrence of unwed mother	1.71±0.72	2.76±0.80	-9.63	<.001
	Emotional perception	3.03±0.86	3.32±0.59	-2.68	.008
	Protection and punishment	1.63±0.57	1.74±0.55	-1.36	.176
	Acceptance in individual lives	2.33±0.62	2.61±0.61	-3.15	.002
	Total	2.13±0.46	2.53±0.39	-6.54	<.001
Sexual Attitude	Pleasurable sex	2.93±0.50	2.82±0.44	1.70	.091
	Virgin until marriage	3.21±0.84	2.85±0.97	2.72	.007
	Sex admissibility	2.72±0.52	2.58±0.45	1.90	.059
	Homosexuality	3.42±1.07	2.85±1.06	3.74	<.001
	Abortion	3.54±0.69	3.37±0.64	1.74	.083
	Total	3.12±0.45	2.88±0.32	4.08	<.001

5.3.2 간호사

간호사 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나이, 주변에서 미혼모 접촉 경험, 병원 규모, 직급, 총 근무기간, 현부서 근무기간, 근무부서, 미혼모 또는 그 자녀를 간호한 경험, 결혼 여부, 자녀 유무 중 나이(F=3.27, p=.024), 직급(t=-3.58, p=.001), 총 근무기간(F=4.80, p=.010), 현부서 근무기간(t=-2.63, p=.010), 근무부서(t=2.17, p=.032) 결혼 여부(t=-4.11, p<.001), 자녀 유무(t=4.6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나이의 경우 사후검정 결과 31-40세 2.66점, 41-50세 2.61점, 51세 이상이 2.62점으로 21-30세의 2.39점에 비해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직급은 수간호사 이상이 2.72점으로 일반간호사의 평균 2.44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총 근무기간은 10-19년이 평균 2.68점으로 10년 미만의 2.41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현부서 근무기간의 경우 5년 이상이 2.69점으로 5년 미만의 2.47점에 비해 높았고, 근무부서의 경우 산과 파트가 2.59점으로 아동 파트의 2.42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결혼 여부에서는 기혼이 평균 2.67점으로 미혼의 2.38점에 비해 높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2.70점으로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2.38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주변에서 미혼모 접촉 경험(t=-2.75, p=.007), 병원규모(t=-2.36, p=.020), 결혼 여부(t=2.09, p=.039)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미혼모 접촉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2.94점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2.76점보다 성태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여성병원이 2.95점으로 종합병원 이상의 2.80점보다 높았다. 미혼이 2.96점으로 기혼의 2.83점보다 성태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Table 2).

6.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산과 및 아동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 정도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 인식과 성태도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은 5점을 기준으로 간호대학생이 2.13점, 간호사가 2.53점이었으며, 간호사가 간호대학생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이는 일반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평균 2.57점[19]과 비교시 본 연구의 대상자 중 간호대학생은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편이었으나, 간호사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동일한 도구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가 제한적이어서 점수만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은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이고 간호사는 보통 수준으로 판단되나, 미혼모들이 의료전문가들과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시선과 태도를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여[6], 후속 연구를 통해 미혼모들에 대한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 중 간호대학생과 간호사 모두 미혼모에 대한 정서적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으며, 미혼모 보호 및 처벌에 대한 인식이 가장 긍정적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9]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필요 없다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미혼모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고정관념이 클수록 미혼모에 대한 거리감이 높아지게 되는데[20],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혼모들이 임신, 출산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간호사의 긍정적인 정서적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경우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정

서와 고정관념이 강화되기 전 반편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 중 보호와 처벌을 제외한 미혼모 발생에 대한 인식, 정서적 인식, 개인의 삶에서의 수용 3개 영역에서 간호대학생에 비해 간호사가 부정적이었다. 이는 간호사들이 간호대학생들에 비해 연령대가 높아 미혼모에 대한 편견이 사회적으로 학습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간호대학생에 비해 미혼모와의 직접 접촉이 많으며 임신과 낙태 및 입양을 반복 선택하는 일부 미혼모들에 대한 경험이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켰을 수 있다[5].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년, 나이, 형제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미혼모에 대한 태도에서 학년, 나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선행연구[14] 결과와 일치하였으나, 형제관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에서 여자형제가 있는 경우 남자형제만 있거나 형제가 없는 경우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미혼모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16]으로 생각된다.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면 실제로 그 대상을 접하기 전에 이미 반응이 존재하여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음[21]을 고려할 때, 본 연구와 선행 연구[14]에서 4학년 학생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타학년 학생들에 비해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졸업 전에 미혼모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식과 관련된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나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21]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영화, 연극, 토론, 시뮬레이션 교육 등의 간접 체험 교육을 통해 미혼모들의 경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산과 및 아동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나이, 직급, 총 근무기간, 현부서 근무기간, 근무부서, 결혼 여부, 자녀 유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 뿐만 아니라 간호대학생 모두에서 나이에 따라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데, 교사들의 나이가 많을수록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고[22] 일반인들 또한 미혼모에 대한 거리감이 컸던[20]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나이가 어릴수록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총 근무경력과 현부서 근무경력이 높고, 직급이 높을수록, 산과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아동 파트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본 연구 결과는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선행 연구[22]에서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교사의 직급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없었던 결과[22]와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나이가 근무경력과 직급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직위가 높을수록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이유는 미혼모와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결정에 따라 입양이나 복지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관리의 책임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미혼모는 임신의 확인에서부터 출산 및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의료인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수간호사 이상의 중간관리자는 미혼모와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면담, 병원 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이므로 이들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산과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아동 파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는데, 이는 아동 파트에서는 미혼모의 자녀 위주로 간호하는데 반해 산과에서는 미혼모의 임신에서 분만의 과정 동안 대면하면서 낙태와 분만, 입양과 양육 결정 등의 선택 과정을 직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기혼일 경우 미혼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없는 경우보다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결과는 일반인에서 결혼 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없었던 선행 연구[16]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기혼 및 자녀가 있는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던 이유가 이들은 이미 전통적인 정상 가족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어, 미혼모를 바라볼 때 미혼 여성의 임신을 일탈적 성행위의 결과로 보거나 낙태나 입양으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는 미혼모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인식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가 없어 추후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태도는 5점을 기준으로 간호대학생이 3.12점, 간호사가 2.88점이었으며, 간호사가 간호대학생에 비해 성태도가 폐쇄적이었다.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평균 3.01점[23]과 비교시 간호대학생은 일반대학생에 비해 성태도가 개방적이었으나, 간호사는 폐쇄적임을 알 수 있다.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에 비해 성태도가 긍정적이었던 연구[24] 결과를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부에서의 성 건강에 대한 교육이 성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24]. 추후 연구에

서는 성 건강에 대한 교육의 이수 여부가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성태도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이유는 간호대학생의 22.78세에 비해 간호사의 평균 연령이 37.29세임을 고려할 때 나이가 어릴수록 성태도가 유의하게 높았던 황인명[17]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나이에 의한 차이로 생각된다. 이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이 필요하다. 성교육시에 이론과 지식의 습득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임상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성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워크샵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며, 성태도에 대한 자기인식 증진을 위한 훈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태도의 하위역역 중 간호대학생과 간호사 모두 성 허용성의 점수가 가장 낮았는데, 이는 일반대학생[23,25]과 간호대학생[14]의 성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성 허용성이 가장 낮았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낙태 허용성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4] 결과와 일치하나, 일반대학생[23,25]에서 동성애 허용성이 가장 높았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일반대학생은 최근 방송과 미디어 매체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동성애에 관해 접할 기회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23]으로 생각되며, 간호대학생과 산과 및 아동 간호사는 교육 과정과 임상 현장에서 낙태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 및 주제를 접할 기회가 일반대학생에 비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성태도 중 혼전순결과 동성애 허용성에서 간호대학생에 비해 간호사가 폐쇄적이었다. 이는 간호사들이 간호대학생에 비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회의 지배적 성규범과 성역할이 내면화되어 있어 성규범 이탈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12]으로 생각되며, 대학생들의 경우 기성 세대에 비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덜 받고, 성에 대해 개방적인 분위기이므로 젊은 층의 대상자들이 좀 더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26].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에서 간호대학생은 주변에서 미혼모를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성태도가 더 개방적이었던 반면 간호사는 주변에서 미혼모를 접촉한 경험이 있을 경우가 성태도가 더 폐쇄적이었다. 미혼모 접촉 경험과 성태도를 비교한 연구가 없어 선행 연구와 비교하기 어려우나 이는 세대간 성태도의 차이일 수도 있으며, 또한 간호대학생은 주변에서 미혼모 접촉한 경험이 있을 때 미혼모에 대한 수용력이 더 크지만 미혼모가 겪는 고충을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간호사는 주변에서 미혼모를 접촉한 경험이 있을 때 미혼모가 겪는 고충을 더욱 직접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미혼모 접촉 경험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변수간의 매개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성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종합병원 이상 규모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에 비해 성태도가 개방적이었고, 미혼인 간호사가 기혼인 간호사보다 성태도가 개방적이었다. 이는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보다 노인에 대한 성태도가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고려할 때[27]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중증도가 높은 질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면 여성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성과 관련된 다양한 모성 유형을 접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성태도가 개방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혼인 간호사가 기혼인 간호사에 비해 성태도가 개방적이었는데 이는 결혼을 한 상태에서는 1부 1처제의 제도권에 안에서 보편적인 질서와 안정을 추구함에 따라 성에 대해 신중하게 바라보는 보수적인 성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과 간호사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 정도를 파악하였으며,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년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여자형제가 없는 경우, 간호사는 나이가 많거나 근무기간이 길고, 직급이 높을수록, 기혼 및 자녀가 있는 경우에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으므로 미혼모 간호시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교육을 할 때에는 고학년을 대상으로 나이와 형제자매 유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중간 관리자 이상이면서, 근무경력이 많고 기혼인 간호사들에게 우선적으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이들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4]해야 한다. 또한 성 건강 간호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16], 간호사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기혼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자신의 주변에서 미혼모를 접촉한 경험이 성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B광역시 소재 2개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94명과 2개의 종합병원과 6개의 여성병원 산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근무하는 간호사 101명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정도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간호사는 간호대학생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으며,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하위영역별로는 미혼모 발생에 대한 인식, 정서적 인식, 개인의 삶에서의 수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미혼모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는 간호대학생은 학년, 나이, 형제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간호사는 나이, 직급, 총 근무기간, 현부서 근무기간, 근무부서, 결혼 여부, 자녀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간호사는 간호대학생에 비해 성태도가 폐쇄적이었으며, 성태도의 하위영역에서는 혼전순결과 동성애 허용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에서는 간호대학생은 주변에서 미혼모를 접족한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간호사는 주변에서 미혼모를 접촉한 경험, 병원규모,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과 간호대학생들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의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향후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와 관련된 연구와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산과 및 아동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향후 다양한 지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혼모 대면 접점에 있으면서 성과 관련한 돌봄을 제공하는 직군별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를 조사할 것을 제언한다. 셋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성태도를 심층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1] Kim HY, "Beyond social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against unwed mother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2013, No.1, pp.69-86, 2013.

[2] Park DJ, Kim HS, Kim HS, Lee SA, Eom JH, Kweon OO, "A study of experiences of child birth and parenting of unmarried single mothers who once were service users of baby box", *Institute f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Vol.18, No.4, pp.323-372, 2017.
DOI : https://doi.org/10.15818/ihss.2017.18.4.323

[3] Kwon HJ, "A history of unwed motherhood in the modern Era", *Korean Journal of Oral History,* Vol.5, No.2, pp.37-80, 2014.

[4] Major B, O'Brien, LT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56, pp.393-421, 2005.
DOI: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6.091103.070137

[5] Kim HJ, "A cas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unwed mothers with medical service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50, pp.181-214, 2015.
DOI: https://doi.org/10.16975/kjfsw.2015..50.007

[6] Sung JH, Kim HJ, Lee MJ, Park YM, "A study of the experiences of unwed mothers in interaction with public services professionals: focusing on the experiences during pregnancy, birth and child car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8, pp.404-418,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8.404

[7] Abraham AA, Wong BBK, Yip B, Wong L, "Knowledge, attitude and skills related to adolescent sexual health education and counseling among pediatric nurses in Hong Kong",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52, No.2, s46-47, 2013.
DOI: https://doi.org/10.1016/j.jadohealth.2012.10.111

[8] Besey Ö, Neriman Z, Saadet Y, Akıncı AÇ, "Attitudes, beliefs and comfort levels of midwifery students regarding sexual counselling in Turkey", *Midwifery*, Vol.56, pp.152-157. 2018.
DOI: https://doi.org/10.1016/j.midw.2017.10.014

[9] Kim HW, Jung YY, Park SM, "Evaluation and applic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sexuality attitudes and beliefs survey for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2, No.6, pp.889-897, 2012.
DOI : https://doi.org/10.4040/jkan.2012.42.6.889

[10] Woo GH,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pp.12, 2011.

[11] Katz A, Sexuality after hysterectomy: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discussion of nurses' rol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42, pp.297-303, 2003.
DOI: https://doi.org/10.1046/j.1365-2648.2003.02619.x

[12] Jeong EH, "School health teacher's ambivalent sexism and attitudes toward homosexualit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20, No.7, pp.503-515, 2020.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20.20.07.503

[13] Lim KJ, Jo MJ, "Experiences of interaction with health care workes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of single mothers tho motherhood",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Vol.25, No.2, pp.155-164, 2016.
DOI: https://doi.org/10.5392/JKCA.2016.16.08.404

[14] Jo MJ, Jun WH, "Influencing factors of sexual attitude, other-compassion and attitudes toward unwed moth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5, pp.94-103, 2019.
DOI: https://doi.org/10.5392/JKCA.2019.19.05.094

[15] Jee YJ, Yang SK, "Effects of sexual attitude, value of children 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3, pp.571-481, 2019.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3.054

[16] Im AD, Choi SH, "A study on the general citizen's social perception toward unwed moms", *Social Science Research,* Vol.10, pp.189-202, 2006.

[17] Whang IM, A study of Korean student's sexual knowledge, self-regulation, attitude, and their perception of unwed pregnancy,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pp.21-56.

[18] Ho SM,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pp.18-19, 2009.

[19] Cho GY, Kim YH, "Factors affecting sexual autonomy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11, 6710-6718,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11.6710

[20] Im AD, "A study on social distance toward unmarried mother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6, pp.365-384. 2016.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6.6.6.034

[21] Jeong, HS, "Attitude on the elderly and elderly patients among nursing students and nurs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No.3, pp15-28, 2013.
DOI: https://doi.org/10.12811/kshsm.2013.7.3.015

[22] Byeon KY, Kim HR, Lee SH, "An exploratory study on teachers' perception of pregnant teens and their educational right",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Vol.11, No.1, pp.1-22, 2009.

[23] Kim NH, Park UJ, Jung HS,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Vol.7, No.2, pp.17-42, 2015.

[24] Kim SG, "A study on sexual attitude, autonomy and harassment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3, pp.223-231, 2017.
DOI : http://dx.doi.org/10.5762/KAIS.2017.18.3.223

[25] Koo SM, Kim HJ,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knowledge or sexual attitudes and reproductive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5, No.12, pp.1-11, 2017.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7.15.12.1

[26] Park JH, Kim KH,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s sexuality of the elderly among nurses and caregivers in long-term care hospital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4, No.1, pp.183-206, 2014.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4.34.1.183

[27] Yang JI, Jeong MH, "Nurse's knowledge, attitude and education needs for sexuality of the elderly",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3, pp.260-270.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3.260

조 명 주(Myoung-Ju Jo) [정회원]

- 2002년 2월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07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3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부산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여성건강간호